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보도 편향성에 관한 연구 -MBC와 JTBC의 저녁종합뉴스를 중심으로-

Bias in TV News Coverage of President Park' s Impeachment -Focusing on MBC and JTBC Evening News-

김병진, 이상은, 양종훈
상명대학교 디지털이미지학과

Byoung Jin Kim(kimbj912@hanmail.net), Sang Eun Lee(jetzt1234@gmail.com),
Jong Hoon Yang(photopower@korea.com)

요약

우리나라는 방송법 등을 통해 방송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MBC와 JTBC는 보수와 진보로 양분돼 보도함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논란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탄핵이 인용된 날부터 일주일간 양 방송사의 저녁 종합뉴스의 아이템 수 변화, 주제의 편향성, 뉴스 프레임 등 3가지 측면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JTBC와 MBC의 관련 보도는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JTBC는 촛불집회 쪽에, MBC는 태극기집회 쪽 관련 주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뉴스 프레임 측면에서 MBC는 탄핵인용 관련 보도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를 옹호하는 태극기집회 참여자들 쪽에서, JTBC는 반대로 반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촛불집회 참여자 입장에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보도 편향성 | 탄핵 | 여론동향 | 대중집회 | 뉴스 프레임 |

Abstract

Through the Broadcasting Act, Republic of Korea regulates the broadcasting system to remain neutral regarding particular party or candidate. However, as MBC and JTBC reports the issue of President Park's impeachment in bisected way -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 the controversy aroused. This research paper comparatively analyzed each broadcasting company's evening news by focusing on quantity aspect, reporting tendency regarding trend of public opinion and mass rally and the news frame. Our research showed that both JTBC and MBC had partially reported; JTBC on pro-impeachment rally's side which was called candlelight rally, and MBC on anti-impeachment rally's side, called Korean National Flag rally. Regarding the way how they reported the impeachment, JTBC reported much more in depth than MBC, and MBC reported the process emotionally, standing for President Park.

■ keyword : | Biased News Reporting | Impeachment | Public Opinion | Mass Rally | News Frame |

I. 서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JTBC의 ‘국정 농단의 주범 최순실의 태블릿 PC’ 특종보도(2016. 10. 24)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외친 촛불시위 참가자들의 힘에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재가 최종 탄핵을 인용하였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심각하게 대립했다. 과거와 달리 이번 경우에는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시위 참가자들의 숫자와 항의의 정도가 높아지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세력, 이른바 태극기집회 세력의 규모도 커져갔다. 진보와 보수를 대변하는 이 두 시위 참가자들의 대립은 우리 사회의 분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언론사들 역시 탄핵관련 뉴스 보도에 열을 올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최초로 최순실 태블릿 PC 건을 특종보도 했던 JTBC는 저녁종합뉴스인 ‘뉴스룸’을 통해 해당 아이템을 매일 주요 이슈로 보도했고, 관련 내용을 다룬 프로그램 ‘썰전’의 시청률은 지상파 예능까지 누를 만큼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JTBC의 이런 보도 방향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으로 보인다. JTBC는 2013년 12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철도노조파업사태 당시 공중파와 다른 종합편성채널에서 다루지 않은 철도산업의 공공성 수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룸으로써 철도노조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1]. 이 보도 이후 JTBC는 2016년 한 매체의 조사에서 줄곧 1위를 해오던 공영방송 KBS를 제치고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부문에서 1위²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들의 신임을 얻었다. 특히 같은 조사에서 JTBC 신뢰도에 대한 지목률이 2년 사이에 20.5%에서 34.4% 상승³해 해당 방송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지상파 채널과 종합편성채널 등 8개 채널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2016년에 실시한 시청자의 직접만족도와 품질

을 평가하는 조사항목 중 공정성 부문에서 MBC는 지상파 4개 방송사 중 최하위를 기록(3.07)했다. JTBC는 같은 조사에서 종합편성채널뿐만 아니라 지상파 채널을 포함한 8개 채널 전체에서 1위를 차지(3.76)했다. MBC는 또 2016년 4월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도 가장 불공정한 보도를 했던 방송사로 평가받은 바 있고⁵, 지난 2004년의 대통령 탄핵 관련 TV방송 내용분석에서도 정규뉴스 보도 관련 앵커 멘트와 기자 리포트에서 방송3사중 가장 편향된 것으로 나타났²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상파 방송인 MBC와 종편채널 중 하나인 JTBC의 탄핵관련 뉴스보도 비교분석을 통해 실제로 두 방송사가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가졌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 언론사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어느 정도인지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보도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제 및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보도의 편향성을 객관적으로 밝힘으로써 불공정한 보도의 문제점을 제고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뉴스보도의 공정성과 편향성

공정성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의 가치, 선악, 우열, 시비 등을 판단할 때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이다 (브리태니카 백과사전). 언론 보도에 있어서 공정성은 신문이나 방송이 어떤 사건을 보도할 때 특정한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성에 입각해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게 보도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언론사들의 뉴스보도는 개인의 정치적 결

4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특보 2017, 206, 재인용

5 총선보도감시연대가 2016년4월13일 총선 D-90인 1월14일(방송은 D-91인 1월13일부터) D-1인 4월12일까지 6개 신문과 7개 방송 저녁 종합뉴스의 선거관련 보도를 양적으로 분석해 선거관련 보도 가운데 문제가 있는 보도를 체크한 결과, 신문 방송 모두 불공정보도가 가장 많았다. 방송은 지상파 MBC와 종편채널 TV조선이 가장 많은 문제를 보였다. 불공정 보도의 경우 MBC 27건, TV조선은 80건이 지적됐다. 건수로는 TV조선이 가장 많지만, 총 선거보도량이 적은 MBC가 불공정보도도 비율이 11.1%로 가장 높았다

1 동아일보 2017.3.17

2 시사저널, 2016.9.13

3 시사저널, 2016.9.13

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균형 보도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3]. 특히 텔레비전 뉴스는 매체들이 혼재하는 현 미디어 시장에서도 여전히 강한 침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4] TV 뉴스 보도는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해야 한다.

선진국의 언론사들은 각각의 문화와 역사 등 자국의 언론 환경에 적합한 공정성 기준을 제시하고 그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방송 공정성 원칙은 형평성의 원칙(Fairness Doctrine)에 입각해 발전했고, 영국에서는 불편부당성(Due Impartiality)의 개념을 통해 발전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6.29 선언 이후 공정성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다. 민주화 이후 방송사의 선거보도가 ‘보수’ 또는 ‘진보’에 치우침이 없었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공정성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5].

선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언론의 정치적 공정성과 편향성에 관해 통용되는 이론과 측정도구는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지만[3], 그 하위개념을 구조화 하고자 하는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공정성의 하위개념에 대한 논의는 대개 Westerstahl(1983)[6]이나 McQuail(1986)[7]이 제시한 공정성 모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Westerstahl (1983)은 객관성을 크게 사실성(factuality)과 불편부당성(impartiality)으로 나누었다[6]. 여기서 사실성은 진실성(truth)과 관련성(relevance)을 포함하는데 진실성이란 사건과 관련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느냐를 뜻하고, 관련성은 보도와 관련해 선택되는 사실들이 적절하고 일관적인 기준을 통해 선택되었는가에 관한 것이다.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은 균형(balance)과 중립성(neutrality)을 포함한다. 균형이란 뉴스보도가 대립되는 여러 시각의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고 동일한 비중으로 여러 시각을 제시하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고 중립적 시각이란 기사가 사건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느냐를 뜻한다.

이 논의에서 Westerstahl(1983)은 객관성을 공정성 모형의 최상위 개념으로 내세웠으나 객관주의적 관점을 모든 나라에서 적용하기는 어렵다. Westerstahl(1983)의 주장에 대해 McQuail(1986)은 뉴스 생산과정에 개입

하는 미디어 조직의 내적 요인과 미디어 조직이 놓여 있는 외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더욱 포괄적인 뉴스 개념의 모델을 구성해 뉴스의 실행을 필연적 요인과 비객관성 요인으로 구분했다[7]. 여기서 비객관성은 편향(bias)을 뜻한다[8]. D'Alessio와 Allen(2000)은 1948년 이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취사선택 편향성(gatekeeping bias), 보도 편향성(coverage bias), 서술 편향성(statement bias)을 뉴스보도의 정치적 편향성 측정 기준으로 제시했다[9]. 이는 보도 공정성 연구를 이루는 정량적 편향성과 정성적 편향성의 양대 분석 방법으로 제시되어 국내 연구들의 주장과 상통한다[5].

우리나라의 경우도 언론의 공정성 혹은 편향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정성의 하위개념과 그 요인에 대해서 관련 규제자들과 학자들 간의 완전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10]. 방송심의규정에서 제 공하는 공정성에 대한 개념은 구체성을 갖추지도 못했고, 변화하고 있는 방송환경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다[5]. 언론사의 보도 기준들 또한 공정성, 공익성, 객관성, 사실성, 균형성, 중립성 등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5].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각 방송사들마다 보도준칙을 마련해 그에 따라 보도하고 있지만 편파성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이승엽 외 2인(2017)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2004년 제6회 지방선거 보도를 분석하여 방송사들이 편향된 보도를 했음을 밝혔다[3]. 단위기사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채널이 여당인 새누리당에 관련한 기사를 가장 많이 보도하여 주제의 편향성이 나타났고, 보도 논조 측면에서는 지상파방송채널에서 MBC가, 종편채널에서는 TV조선이 새누리당에 편향적인 것으로 나왔다. 반면에 JTBC는 새정치민주연합에 편향적인 논조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공정성의 개념이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공정한 보도를 단순히 산술적 균형 또는 중립 보도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11]는 지적과도 일치한다. 반면 임태섭(1993)[12]은 공정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으며 연구 목적에 적합한 하위개념을 구성하는 방식이 유용하다고 주장했다[5]. 따라서 본 연구에 위에 논의된 공정성을 구성하는 개념들 중 본 연구에 적합한 핵심적인 하위개념을 중심으로 보도의 편향성을 살펴보았다.

2. 미디어 프레임

공정성과 편향성에 대한 연구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 프레임은 미디어가 자신의 시각에서 사물을 어떻게 보도하느냐를 가리키는 것으로 ‘미디어가 자신의 시각에서 현실을 재구성하는 틀(행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테면 ‘뉴스 미디어가 현실을 재구성하는 도구’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13]. Entman(1991)은 뉴스 프레임의 주요 특성으로 선택과 현저성(salience)을 제시하며 현실의 특정 측면을 선택하고 강조하여 전달하는 행위로 보았다[14]. Gamson(1992)은 이러한 언론의 이야기 구성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달된 뉴스를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한다고 했다[15]. 다시 말해 미디어 프레임이란 미디어가 특정 이슈에 대해 ‘보는 시각’, 혹은 ‘해석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가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 하느냐에 따라 즉, 어떤 사안에 대해 가중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뉴스를 접하는 시청자들이 상이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주현과 나은경(2015)은 보수 중편의 세월호 사건 보도 프레임 분석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묘사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음을 밝혔다[17]. 실종자 수색과 안전 대책 요구를 위한 행위의 적극성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유가족과 세월호 유가족을 구분해 묘사하였다. 세월호 유가족의 집회참가와 농성, 폭력행위를 강조해 보도함으로써 세월호 유가족은 반정부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뉴스 프레임이 대중들의 현실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의견을 양극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Pan과 Kosicki(1993)는 프레임링을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과정으로 보았다[18]. 정치적 집단이 자신을 지지하는 구성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프레임링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뉴스 생산과

전파의 과정에서 언론이 이러한 권력 집단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어떤 프레임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프레임링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집단의 갈등 양상은 언론사들의 보도양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상률과 이준웅(2014)[1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에 걸쳐 벌어진 검·경 수사권 갈등 초기에 언론은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검찰과 경찰을 비판한 ‘밤그릇 프레임’을 많이 제시했다. 반면, 갈등이 심화되면서 특정 프레임으로 치우치거나 언론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정치 집단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양식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언론이 권력에 독립해서 주체적으로 뉴스를 생산해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관련 집단의 프레임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갈등 양상을 그대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프레임의 기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III.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MBC와 JTBC의 뉴스보도 편향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MBC와 JTBC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이후 탄핵 관련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 양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MBC와 JTBC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이후 탄핵 관련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 보도주제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MBC와 JTBC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이후 탄핵 관련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 뉴스 프레임 활용 방식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방송뉴스의 편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2017년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MBC,

JTBC의 저녁종합뉴스(‘뉴스데스크’, ‘뉴스룸’)의 탄핵 관련 뉴스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뉴스의 양적측면뿐만 아니라 주제 및 뉴스 프레임 등에 내용 분석 방법을 적용했다. 이 시기를 택한 이유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대통령 탄핵선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방송사별 보도의 양과 프레임이 가장 잘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2 분석방법

뉴스의 양적 측면과 뉴스주제의 편향성은 이승엽 외 2인(2017)[3]의 종합편성채널의 정치적 편향성 분석에서 적용한 Dallecio와 Allen(2000)[9]의 보도 편향성(coverage bias)과 취사선택의 편향성(gatekeeping bias)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의결과 관련한 TV방송 내용을 연구한 이민용 외 5인(2004)[2]에서 제시한 프레임을 원용해 각 방송사가 탄핵 관련 뉴스 전달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프레임을 분석했다.

2.2.1 뉴스의 분량과 아이템 수의 변화

탄핵 관련 보도의 양적 측면으로 전체 보도기사 수에서 탄핵 관련 보도기사 수 및 그 비율을 분석해 보고, 탄핵 관련한 일별 아이템 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Dallecio와 Allen(2000)의 보도 편향성(coverage bias)은 보도의 물리적인 양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리킨다[9].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상황에서 탄핵에 대한 정당성의 견지에서 보도한 방송사와 그렇지 않은 방송사간 보도 양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MBC와 JTBC는 관련 뉴스를 얼마나 보도했는지,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이템 수가 양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알아보았다.

2.2.2 뉴스 주제

Dallecio와 Allen(2000)의 취사선택에 대한 편향성(gatekeeping bias)은 뉴스보도가 특정 사건의 몇몇 주제를 선별적으로 보도하고 다루는 정도를 말한다[9]. 이 개념을 바탕으로 탄핵 관련 뉴스 주제의 편향성을 분석

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뉴스에서는 현재판결을 중심으로 정치권 종합, 여론 동향, 여야 반응, 경제계 반응, 대중집회, 외국의 반응, 향후 대선 영향 등 다양한 주제가 있다. 이들 주제 중에서 현재판결과 정치권 종합, 경제계 반응 등에 대한 보도에서는 방송사 별로 큰 차이를 두기 어렵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 친 권력과 반 권력의 보도 측면에서 두 방송사가 확연히 다를 것으로 판단하고 뉴스주제인 여론 동향과 대중집회 관련한 양 방송사의 비교를 통해 보도 방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탄핵 찬성 여론이 80% 이상⁶으로 압도적인 상황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외쳤던 촛불집회와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태극기집회에 대한 보도 내용과 방향은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확인해 보고자 했다.

2.2.3 뉴스 프레임

프레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대통령 탄핵사건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사건으로 대통령 탄핵인용 보도에 대한 프레임 유형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가장 유사한 연구 목적으로 진행된 이민용 외 5인(2004)[2]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TV방송 연구를 준거로 삼아 여기서 추출한 미디어 프레임 분석틀(analytical framework of the media frame)의 일부를 차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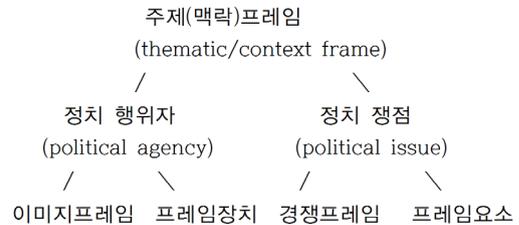


그림 1. 2004년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TV 방송 보도의 프레임 분석틀[2]

6 2017. 3. 11.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긴급 여론조사 실시한 결과 국민 전체의 86%가 현재 결정에 대해 '잘한 결정', 12%는 '잘못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프레임 분석 방법으로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있다[20]. 연역적 방법은 이미 유형화된 프레임을 설정해 미디어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고, 귀납적 방법은 프레임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원용한 논문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1차 분석 단위가 되는 아이템의 주제 분석 (thematic analysis) 결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된 내용은 주요 정치 행위자나 정치 쟁점을 중심으로 보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아이템의 주제를 살펴본 결과 정치 쟁점 보다는 정치 행위자에 관한 보도가 현저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정치 행위자를 상위 프레임으로 설정했다.

원용한 연구에 정치 행위자를 보도하는 경우 이미지를 프레임을 통해 드러냄을 밝혔고 이미지를 프레임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프레임 장치, 즉 정치 행위자를 정의하는 중심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정 서술 방식이나 표현 기법을 귀납적 방식으로 추출했다. 구체적으로 행위자 묘사 용어, 행위자에 대한 보도 주제, 행위자의 표현적 속성, 등을 행위자를 묘사하기 위한 프레임 장치로 설정했다.

본 연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가장 첨예하게 대비되는 주요 정치 행위자 및 집단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촛불집회 참가자’, ‘친박 및 태극기집회 참가자’로 구분하고 이들을 묘사하기 위해 활용되는 이미지 프레임을 구성하는 프레임 장치를 묘사 용어, 행위자에 대한 보도 주제, 행위자의 표현적 속성으로 설정했다. 각 프레임 장치에 대한 세부 요소는 원용한 논문을 기반으로 하되 본 연구의 사례에 적합한 요소는 귀납적으로 추출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장치들의 조합이 해당 정치 행위자 및 집단의 이미지를 어떻게 재현하는지 살펴보았다[표 1]. 즉, 각 방송사 보도에서 나타나는 정치 행위자의 이미지 프레임의 현저성을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분석은 해당 방송사의 보도가 어느 쪽에 얼마만큼 편향되었는지에 대한 정성적인 논의를 제공한다.

표 1. 박근혜 대통령 탄핵 뉴스보도의 정치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프레임 장치	세부 내용 및 어휘
묘사 용어	행위주체를 묘사한 명사, 형용사, 동사 등의 용어 (예: 함성, 침묵, 참담한, 억울한, 자축하다, 통곡하다)
행위 주체에 대한 주제	행위주체에 대해 주된 이야기 (예: 탄핵 인용에 대한 입장, 실천 의지 등)
행위자의 표현적 속성	행위주체의 이미지 (예: 격렬한, 차분한, 감성적/감상적, 이성적, 소극적, 적극적, 기타)

IV. 연구결과

1. 뉴스의 분량과 아이템 수의 변화

전체 표집된 뉴스 아이템의 개수는 아래 [표 2]에서 보듯 378개였고, 탄핵 관련 뉴스는 253개였다. 이 중 MBC의 탄핵 관련 뉴스는 98개, JTBC는 155개였다. 전체 뉴스 중 탄핵뉴스 비율을 보면 MBC가 51.3%, JTBC는 82.9%였다.

표 2. 뉴스의 정량적 표집 결과(아이템 수)

구분	방송사		전체
	MBC	JTBC	
빈도	98(전체 191)	155 (전체 187)	253 (전체 378)
%	51.3	82.9	66.9

표집된 전체 1주일 간 뉴스 아이템 수를 날짜별로 보면, MBC는 3월 10일 57개 아이템을 방송했다. 이는 당일 58개 아이템 중 57개를 관련 아이টে으로 방송해 98.3%에 달한다. JTBC는 45개를 방송했는데 비율로는 45개중 45개를 방송해 100%에 이른다. 탄핵인용 첫 날인 10일 두 방송사는 모두 특별편성을 통해 거의 대부분 탄핵 관련 아이টে으로 방송했다. 그러나 아래 [표 3]에서 보듯 MBC의 경우 첫날을 제외한 다음날부터는 관련 아이টে 뉴스를 현저히 줄여 11일 7개(36.8%), 12일 15개(83.3%)를 방송했다. 15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날이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관련 뉴스를 아이টে으로 방송했다. 13일은 7개를,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3개(12.5%)로 아이টে 수를

현저히 줄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JTBC는 다음 날인 11일 25개(100%), 12일 13개(100%)로 3일 연속 관련 뉴스로만 방송했고, 이후 13일에는 20개(76.9%)로 줄었다가 16일에도 20개(74.1%)로 일정 부분 관련 아이템 수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도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저역종합뉴스의 일별 뉴스 아이템 수의 변화

구분	방송		전체		
	MBC	JTBC			
날짜	3.10	빈도	57/58	45/45	102/103
		%	98,3	100	99,0
	3.11	빈도	7/19	25/25	32/44
		%	36,8	100	72,7
	3.12	빈도	15/18	13/13	28/31
		%	83,3	100	90,3
	3.13	빈도	7/25	20/26	27/51
		%	28,0	76,9	52,9
	3.14	빈도	4/23	16/21	20/44
		%	17,4	76,2	45,5
	3.15	빈도	5/24	16/30	21/54
		%	20,8	53,3	38,9
	3.16	빈도	3/24	20/27	23/51
		%	12,5	74,1	45,1
	전체	빈도	98/191	155/187	253/378
		%	51,3	82,9	66,9

2. 뉴스 주제

아래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여론 동향 및 대중 집회 관련해 양 방송사 간 보도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MBC의 경우 여론 동향에 대한 보도는 전혀 없었다. JTBC의 경우 3.11일 “탄핵 결정 잘했다” 86%, “승복한다” 92%에 이어 3.13일 80% 넘게 “탄핵 잘한일”, 국민 여론은 ‘찬성’이 압도적, 3.15일 “필요시 박 전 대통령 구속해야” 72% 등 3회에 걸쳐 탄핵과 대통령 구속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을 방송했다.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두 방송사는 양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MBC의 경우 4회만 보도하였고, JTBC는 총 11회를 보도했다. 내용면에서 MBC와 JTBC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MBC는 “촛불 민심의 승리” 로 보도한 반면 JTBC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집회 새 역사 쓴 촛불집회’ 기사 등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의미 있게 다루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태극기 집회의 경우 MBC와 JTBC는 양적으로는 비슷한 보도를 내보냈으나 내용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양적으로

MBC는 총 12회(12.2%), JTBC는 11회(5.9%)로 차이가 별로 없으나 비율 면에서는 MBC가 두 배 이상 더 많았으며, 보도 순서상으로도 탄핵인용 첫 날 MBC는 8, 9번째 아이템으로 ‘탄핵 선고에 ‘거센 반발’, 집회 참가자 2명 사망’, ‘탄핵 반대 측 “원천무효, 복종 국민 서명 받을 것”’ 등을 배치해 두 개의 관련 아이템을 연속 보도한 데 반해, 10번째 순서로 “촛불 민심의 승리” 광화문서 탄핵 인용 환영 집회’로 촛불관련 아이템을 방송했다. 또한 ‘보수 세력 광장으로 이끈 “태극기 집회”, 새 바람’이라는 아이템을 통해 태극기 집회의 의미를 부각시켜 전달하고자 했다.

표 4. 여론 동향 및 대중 집회 관련 리포팅 비교

구분	방송사		전체	
	MBC	JTBC		
뉴스 주제	여론동향 (여론조사)	0(0.0%)	3(1.9%)	3/253(1.2%)
	촛불집회	4(4.1%)	11(7.1%)	15/253(5.9%)
	태극기집회	12(12.2%)	11(7.1%)	23/253(9.1%)
전체		16(16.3%)	25(16.1%)	

반면 JTBC는 탄핵 인용 첫 날 아이템을 태극기집회보다 먼저 방송했고, 양적으로도 총 4개의 관련 아이템을 방송해 태극기집회 아이템 2개보다 두 배가 많았다. 내용면에서도 “이제 봄이 왔다”, 탄핵 인용 맞은 촛불, 다시 광장으로’, ‘전국 곳곳 탄핵 인용 촛불집회, 마음 하나로 모을 때’ 등 서울 뿐 아니라 전국의 촛불집회 상황을 보도한 데 반해,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는 ‘현재 앞치박집회, 한때 물리적 충돌도, 2명 사망’, ‘친박집회 대부분 해산, 경찰, 사망사고 용의자 긴급체포’ 등 사실에 입각한 보도에 그쳤다. 태극기집회 부분에서 양 방송사 간 전체 숫자가 비슷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삼성동 사저로 퇴거하면서 JTBC가 친박집회를 적극 보도하였기 때문이다.

3.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프레임 분석 연구목적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된 2017년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일주일간 MBC의 ‘뉴스데스크’와 JTBC ‘뉴스룸’ 등 두 방

송사의 저녁종합뉴스를 모집단으로 설정한 뒤 탄핵소추를 직접 다룬 아이템 중 양 방송사의 프레임이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템만을 분석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아이템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대중집회 가운데 ‘촛불집회’와 ‘친박 및 태극기집회’ 3가지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후 해당기간에 두 방송사가 방송한 3가지에 대한 관련 아이템을 전수조사 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관련 프로그램의 아이템 수는 아래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두 94개였다.

표 5. 프레임 분석 위한 분석대상 아이템 내용 및 수

구분		방송사		전체
		MBC	JTBC	
뉴스 주제	박근혜 대통령/청와대	24	32	56
	촛불집회	4	11	15
	태극기 집회	12	11	23
전체		40	54	94

3.1 박근혜 전 대통령/청와대의 이미지 프레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은 방송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MBC의 경우 침통한 피해자의 이미지로 뉴스 보도에 묘사되었다. 해당 프레임을 구성하는 묘사용어는 ‘할 말을 잃은 듯 무거운 표정’, ‘현재 결정에 큰 충격’, ‘관저에 혼자 머무는’, ‘첫 대통령직 파면이란 참담한 결말’, ‘당장 검찰 수사부터 대비해야 할 처지’, ‘텅 빈 이곳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등의 묘사용어를 통해 침통한 피해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에 반해 JTBC는 뻔뻔하거나 억울한 불복자 이미지로 보도하고 있다. 그와 같은 이미지는 ‘관저에 머물며 ‘침묵’, ‘언제 나가지도 불투명’, ‘석연치 않은 이유’, ‘불복 가능성을 암시’, ‘지지세력 결집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 ‘이 시각에도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빨리 승복 입장을 밝혀야’,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여전히 프로파일’, ‘현재의 심판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억울함을 재차 강조한’ 등의 묘사용어에서 추출할 수 있다.

표 6. 정치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 박근혜 대통령/청와대

이미지 프레임	MBC	JTBC	
	침통한 피해자	억울한 불복자	
묘사 용어	할 말을 잃은 듯 무거운 표정, 현재 결정에 큰 충격, 관저에 혼자 머무는, 첫 대통령직 파면이란 참담한 결말, 당장 검찰 수사부터 대비해야 할 처지, 텅 빈 이곳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눈물의 승복,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청와대에서 물러난 첫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침묵’, 언제 나가지도 불투명, 석연치 않은 이유 불복 가능성을 암시, 지지세력 결집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 이 시각에도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빨리 승복 입장을 밝혀야,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여전히 프로파일, ‘현재의 심판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억울함을 재차 강조한’	
보도 주제	탄핵인용에 대한 입장: 입장발표 없이 침묵, 관저에 혼자 머물고, 청와대 머물며 침묵	침묵을 지키고, 관저에서 혼자 지내고, 불복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 오늘도 끝내 현재 결정을 승복한다는 메시지는 내지 않아	
	동정: 긴급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 할 말을 잃은 듯 무거운 표정	자연인 신분으로 청와대에 머물고 있는, 계속된 침묵...‘사실상 불복 의사’ 시각도, 보고와 달리 8대 나오자 더 충격, 긴장감이 감돌아,	
	청와대 향후 행보: 조만간 자택으로,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 일각에서 제기, 모든 결과 안고 가겠다	계속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잘 모르겠다 입장만 되풀이, 현재 결정에 불복을 하면서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는, 정치적인 반격을 노리는 것	
표현적 속성	감성적	평민, 무거운, 안타깝게, 눈물의, 격양된, 홀로, 쓸쓸한, 비극적	연신 흥분한
	이성적	일일이, 작별 인사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할	밝은 표정으로, 애써 우울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려는, 일일이 인사
	소극적	파면결정에 대한 입장은 내지 않은, 대국민 메시지를 내지 않고	참모들과 인사만 나누고, 대국민 메시지는 없이

보도 주제와 관련해서 MBC는 ‘청와대 머물며 침묵’ 등의 탄핵안 인용에 대한 입장, ‘긴급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 ‘할 말을 잃은 듯 무거운 표정’ 등의 대통령 동정, ‘조만간 자택으로’ 등의 대통령의 향후 행보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JTBC는 ‘불복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 등의 탄핵인용에 대한 입장과 ‘자연인 신분으로 청와대에 머물고 있는’, ‘계속된 침묵’, ‘사실상 불복 의사 시각도’ 등의 동정, 그리고 ‘계속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잘 모르겠다 입장만 되풀이’, ‘현재 결정에 불복을 하면서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는’ 등의 묘사가 주를 이루었다.

표현적 속성은 MBC에서 ‘텅빈’, ‘무거운’, ‘안타깝게’, ‘눈물의’, ‘격양된’, ‘홀로’, ‘쓸쓸한’, ‘비극적’ 등 감성적 속성이 많이 나타났으며, JTBC의 경우 감성적 속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표 6]에 자세하게 제시되었다.

3.2 촛불집회 참여자 이미지 프레임

탄핵인용에 결정적 모티브가 됐던 촛불집회는 이번 탄핵인용 후 관련 보도에서 주요정치 행위자로 빈번하게 보도되었다. 그 이미지 프레임은 양 방송사가 대등 소이했으나 구체적 묘사부분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MBC의 경우 ‘환호하는 승리자’ 프레임으로 나타났고, JTBC에서는 ‘민주주의 수호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묘사용어 면에서 MBC는 “‘이겼다’를 연호하며 크게 환호’, ‘광장의 함성은 커져 가’, ‘촛불은 거대한 물결이 돼 광장을 뒤덮어’, ‘결국 좌고우면하던 정치권을 움직여’ 등으로 환호하는 승리자의 모습을 표현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평소보다 밝은 편’, ‘오늘도 촛불을 켜 시민들로 점점 밝아지고’ 등의 묘사에서 보듯이 승리에 감격하는 극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지못해 승리자의 모습을 묘사했다.

반면 JTBC의 경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1600만 명 넘게 참가한 촛불 집회는 그 자체로도 새로운 역사’, ‘민심의 엄중함을 보여’, ‘스스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기념하고 자축’, ‘비폭력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쟁취한’ 등으로 비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감격해하며 이를 자축하는 이미지가 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두 방송사 모두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승리자와 민주주의 수호자라는 이미지 프레임이 형성됐지만 구체적 묘사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아래 [표 7]에 자세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표 7. 정치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 촛불집회 참여자

	MBC	JTBC
이미지 프레임	환호하는 승리자	민주주의 수호자
묘사 용어	"이겼다"를 연호하며 크게 환호, 오늘도 촛불을 켜 시민들로 점점 밝아지고, 분위기는 평소보다 밝은 편, 광장의 함성은 커져 가, 촛불은 거대한 물결이 돼 광장을 뒤덮어, 결국 좌고우면하던 정치권을 움직여, 불과 2주 만에, 첫 집회 참가자의 수십 배가 넘는 인원이 몰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1600만 명 넘게 참가한 촛불 집회는 그 자체로도 새로운 역사, 민심의 엄중함을 보여, 스스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기념하고 자축, 비폭력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쟁취한 '
보도 주제	탄핵인용찬성: "광화문서 탄핵 인용 환영 집회,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일제히 환호	함께 기쁨을 나누는, 현재의 판결을 반기고, 평일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시민의 승리: 촛불 민심의 승리	'시민이 승리,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보인다', '이제 정말 봄이 왔다'
	강력한 실천의지: 탄핵 인용 이끌어 낸 원동력, 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황교안 권한대행 퇴진, 공범자 처벌을 외쳐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 등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힘을 모으겠다. 내일 대규모 행진과 집회
표현적 속성	평화적 시위: 부상자, 연행자 하나 없는 평화 집회, 폭력 시위와 강제 진압 대신 광장은 해학과 풍자로 넘쳐났고, 경찰 차벽은 평화를 상징하는 꽃 스티커로 장식,	평화롭게 광장을 지킨, 평화 집회 134일
	격렬한: 일제히 환호 감성적: 열씨안고 감격의 눈물 적극적: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	격렬한: 항의하는 감성적: 눈물을 흘리는 적극적: 청와대로도 행진

보도 주제 면에서도 양 방송사 모두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일제히 환호’ ‘평일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환호하고’ 등을 통해 시민들의 환호하는 모습을 부각시켰다. 또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 구속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지속하겠다는 의도가 중점적으로 드러났다. 표현적 속성과 관련해서는 열씨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통해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드러냈다.

3.3 태극기집회 참여자 이미지 프레임

태극기집회 참가자 역시 주요한 정치 행위자로서 매우 중요하게 보도되었다. 그러나 촛불집회 참가자 이미지 프레임과는 달리 태극기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두 방송사간 차이가 많았다.

표 8. 정치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 태극기 집회 참여자

이미지 프레임	MBC		
	헌법 및 대통령 수호자	과격한 행동주의자	격분하는 항의자
묘사 용어	대한민국 헌법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을 꼭 구할 것. 불복종 국민 서명, 법치에 의해 이뤄져야	경찰 버스 창문을 깨뜨리려는 듯 세계 내리쳐,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겨,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속출, 청와대 2백 미터 앞까지 행진	거센 반발, 격렬하게 반발. 통곡하는, 울분을 토하는, 과격한 분위기가 일기도
보도 주제	탄핵 반대	격렬하게 반발, 집회 참가자 2명 사망, "원천무효, 불복종 국민서명 받을 것", 탄핵 기각에서, 탄핵 무효로	
	강력한 실천 의지	우리 침묵하는 보수는 그냥 있지 않겠다, '불복종 국민 서명'도 받겠다,	
	현재 비난	헌법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생각,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역모이자 반란"	
	폭력적 시위	사상자가 속출, 참가자 2명이 숨진 참변, 2명이 위독한 상황, 의경 7명이 다쳐, 사망자는 3명으로 늘어,	
표현적 속성	격렬한	피를 흘린 채, 분노와 절망, 격한 감정을 토해내기도	
	감성적	통곡하는, 망연자실한, 눈물을 터뜨리는, 오열과 탄식이 터져, 착잡하고 마음이 아파,	
	적극적	불복종 국민 서명도 받겠다	

MBC에서 나타난 이미지 프레임은 헌법 및 대통령 수호자, 과격한 행동주의자, 격분하는 항의자의 모습으로 보도되었다. 이들은 탄핵인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고, 불복종 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꼭 구하겠다고 강렬한 실천의지를 보였다. 또 경찰 버스 창문을 깨뜨리려는 듯 세계 내리치거나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속출 등 '과격한 행동주의자'의 모습이었으며, '거센 반발', '격렬하게 반발', '통곡하는', '울분을 토하는' 등의 표현 속에서 '격분하는 항의자'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반면 JTBC는 기물을 파손하고 깃대와 각목으로 위협하며, 격렬한 몸싸움, 벽면을 뜯어내고 창문을 깨기도 등 통제 불능의 '과격한 행동주의자'의 모습과 "헌재를 박살내자", "흥기를 든 채 자해를 시도하는 등의 묘사에서 드러나듯 더욱 거칠고 격렬한 구호를 외치는 '격분하는 항의자'의 모습은 유사했지만, 무책임한 폭력선동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묘사되었다.

표 9. 정치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 태극기 집회 참여자

이미지 프레임	JTBC		
	무책임한 폭력선동자	과격한 행동주의자	격분하는 항의자
묘사 용어	폭력 선동에 애꿎은 참가자들 '비극', 무책임한 그들, 폭력을 유도한 사람들은 뒤로 빠지고 애꿎은 참가자들만 변을 당하고, 무대 위에서 소리치던 인사들은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기물 파손, 격렬한 몸싸움 충돌하면서 사상자 발생, 깃대와 각목으로 위협, 벽면을 뜯어내고 창문을 깨기도, 취재진에게 욕설, 카메라를 밀치기도	"들격하라, 전진하라" 헌재를 박살내자, 흥기를 든 채 자해를 시도, 과격 행동은 더 격렬, 경찰 버스 운전석을 무단 점거하고 버스로 차벽을 들이받아
보도 주제	탄핵 반대	대통령의 파면을 인정할 수 없다, 불복 주장을 이어가, 탄핵 판결은 현재 발 역모였고, 반란이었다, 재판관 9명을 새로 지명해 다시 심판하라는 요구도	
	강력한 실천 의지	제2의 건국 투쟁에 나가자.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들에게 보여줘야, 현재로 감시다, 아직까지 밤을 새우기도,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란 조직을 결성	
	현재 비난	현재로 진출하려는, 헌재를 향한 행진도 포기하지 않은, 헌재를 박살 내자, 현재의 역모, 헌재 해산을 요구,	
	폭력적 시위	과격한 위협과 폭력을 유도하는 발언, 끝내 3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 경찰 버스를 빼앗아, 차벽을 들이받아, 몸싸움을 벌여 이수라장, 70대 노인은 머리를 맞아 끝내 숨져	
표현적 속성	격렬한	흥분한, 죽기를 각오하고, 무차별 폭행	
	감성적	피를 흘리고 쓰러져, 피를 뿌리고 죽었던	
	적극적	청와대 2백 미터 앞까지 행진	

이와 관련한 묘사용어로는 '폭력 선동에 애꿎은 참가자들 '비극'', '무책임한 그들', '폭력을 유도한 사람들은 뒤로 빠지고 애꿎은 참가자들만 변을 당하고', '무대 위에서 소리치던 인사들은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등을 통해 무책임한 폭력선동자의 모습을 드러냈다.

보도 주제로 MBC에서는 격렬한 반발 집회, 집회 참가자 2명이 사망한 내용, "원천무효, 불복종 국민서명 받을 것"이라는 내용 등이 중심 주제로 구성되었다. 또 탄핵 기각에서, 탄핵 무효로 구호가 바뀌고, '불복종 국민 서명'도 받겠다는 주장이 부각되었다. 또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역모이자 반란"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표현되었고, 사망자는 3명으로 늘고, 사상자가 속출해 참가자 2명이 숨진 참변 등 폭력적 시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주를 이뤘다. JTBC 역시 탄핵 판결은 현재 발 역모였고, 반란이었다는 탄핵을 반대한다는 주제가 주로

보도되었으며,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들에게 보여 줘야’, ‘아침까지 밤을 새우기도’,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란 조직을 결성’ 등의 주제가 부각되었다.

또한 ‘헌재를 박살내자’, ‘헌재 해산을 요구’하는 구호’ 등의 헌재 비난 내용이 주로 나타났으며, 경찰 버스를 빼앗거나, 몸싸움을 벌여 이수라장을 이루고, 70대 노인이 머리를 맞아 숨졌다는 폭력적 시위임을 드러냈는데, MBC에서 강한 항의 차원의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면 JTBC는 ‘상황이 악화되지만 주최 측은 참가자들을 오히려 자극’에서 보듯 폭력을 자극하는 주최 측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표현적 속성과 관련해서는 MBC가 ‘통곡하는’, ‘망연 자실한’, ‘눈물을 터뜨리는’, ‘오열과 탄식이 터져’, ‘착잡하고 마음이 아파’ 등 감성적 묘사가 주를 이룬데 비해 JTBC는 탄핵인용에 반대에 ‘죽기를 각오하고’, ‘피를 뿌리고 죽었던’, ‘무차별 폭행’ 등의 격렬한 집회 모습에 비중을 두었다. 세부 내용은 위의 [표 8][표 9]와 같다.

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공영방송 MBC와 종합편성채널 JTBC가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관련 보도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론동향보도 및 집회단체에 편향된 보도를 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탄핵이 인용된 지난 2017년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7일 동안 MBC와 JTBC 저녁종합뉴스를 대상으로 편향성을 분석하였다.

보도의 양적 측면에서 MBC는 탄핵관련 보도를 많이 하지 않았고, JTBC는 분석 기간 동안 대부분을 탄핵관련 뉴스로 보도했다. 뉴스 주제 면에서 MBC는 여론동향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았던 반면, JTBC는 3회에 걸쳐 탄핵과 대통령 구속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을 방송했다. 단체집회에 대해서도 MBC는 태극기집회에 대해, JTBC는 촛불집회에 우호적으로 보도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MBC가 탄핵관련 보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배제하려고 했던 반면, JTBC는 지속적

으로 관련 뉴스를 보도함으로써 탄핵의 정당성을 전달하려 했다고 판단된다. 이전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사들은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자사의 선호와 상충되는 정보에 대해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경향성을 보여 왔다[5].

한편, 두 방송사가 보도에 사용한 프레임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MBC가 대통령에 대해서 ‘침통한 피해자’ 이미지 프레임으로 보도한 반면, JTBC는 자연인 신분으로 청와대를 무단점거하거나 현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으로 보도했다. 또한 MBC는 매우 감성적 언어로 대통령을 측은하게 묘사했으나, JTBC는 감성적 묘사보다는 이성적 표현을 주로 사용했으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도 MBC는 태극기집회 참가자에 우호적 프레임으로, JTBC는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해 우호적 프레임으로 보도했다.

종합적으로 MBC는 탄핵인용 관련 보도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를 옹호하는 태극기집회 참여자들 쪽에서, JTBC는 반대로 반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촛불집회 참여자 입장에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언론사들의 뉴스보도는 개인의 정치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언론은 대통령 선거 등 주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공정성 논란이 있어왔다[5].

공정성에 대한 완전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론들이 이념적 혹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파성을 띠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5]. 언론보도와 관련해 서구 선진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만 해도 선거과정이나 선거이후에 언론보도의 공정성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경우는 드물다[2]. 다시 말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우리사회가 아직 언론보도의 공정성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이번 연구는 많은 국민들이 주요한 사안에 대해 정보의 핵심적인 수용 매체인 TV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헌법재판소에 의한 첫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 어떻게 보도했고, 그 보도는 얼마나 공정했는지 혹은 얼마나 편향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올바른 저널리즘 방향에 대한 논의의 근거와 자료를 제공하고, 공영방송이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편파보도와 경마식 저널리즘으로 비판받아 온 대부분의 종편채널과 달리 JTBC는 국민의 관심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여론을 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공영방송 MBC는 정권의 편에서 편향되게 보도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탄핵 관련 뉴스를 상대적으로 축소해서 보도했다는 사실도 확인돼 공영방송 무용론이 대두되는 상황에 직면한 이유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분석 방법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탄핵인용이 전례가 없었던 이와 관련한 연구사례가 부족하여 기존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통과 이후 연구되었던 사례를 원용하였으나, 탄핵소추안 국회통과와는 다른 사안이어서 정확히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기자의 리포팅, 크로마키와 자막, 영상이미지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가장 편향되게 방송했다고 평가되는 MBC와 방통위의 최근 조사에서 가장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평가받은 JTBC 두 방송사가 뉴스 프로그램 중 가장 공을 들이고, 자사의 보도 원칙 및 논조가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5]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적절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MBC와 JTBC 두 방송사, 그것도 메인 뉴스만을 분석대상으로 편향성을 연구함으로써 다른 지상파 방송은 물론이고 기타 종합편성채널의 편향성을 광범위 하게 분석하지 못해 두 방송사의 단순 비교만 있었을 뿐, 종합적인 공정성과 편향성을 연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세 번째는 공정성에 대한 정의가 아직 명확히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공정성이나 편향성을 모두가 수긍하는

정량화된 지표로 나타내기 어려웠다. 따라서 두 방송사가 특정 입장이나 진영에 어느 정도 편향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도 본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공정성이나 편향성에 대한 논의가 정성적인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프레임 장치의 세부 요소에 대한 언급 여부뿐만 아니라 빈도수를 분석함으로써 보도의 편향성을 정량화된 지표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한 미디어 담론의 전반적인 흐름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후속 연구에서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보도 내용을 폭넓게 살펴보고 대통령 탄핵 보도에 대한 프레임 논의를 확대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지상파 방송사와 노조 간 갈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보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방송사의 공정성을 반추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공한 방송의 편향성에 대한 정성적인 논의는 우리나라 방송사가 공정성과 편파성을 검증하는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편향 방송 채널을 바로잡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의 기회 또한 제공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조은영, 유세경, “종합편성 채널 도입과 방송 뉴스 보도의 다양성,” 한국언론학보, 제58권, 제3호, pp.433-461, 2014.
- [2] 이민웅, 윤영철, 윤태진, 최영재, 김경모, 이준웅, *대통령 탄핵 관련 TV방송 내용 분석*, 한국언론학회, 2004.
- [3] 이승엽, 양기문, 이상우, “종합편성채널의 정치적 편향성 분석,” 한국방송학보 제31권, 제1호, pp.149-183, 2017.
- [4] N. Signorielli, “Aging on television: Messages relating to gender, race, and occupation in prime tim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48, No.2, pp.279-301, 2004.

[5] 원희영, 윤석민,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공정성에 관한 연구-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메인 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9권, 제1호, pp.117-148, 2015.

[6] J. Westerståhl, “Objective news reporting general premises,” Communication research, Vol.10, No.3, pp.403-424, 1983.

[7] D. McQuail, *From bias to objectivity and back*, News and knowledge, 1986.

[8] 박주현, *선거보도의 열 가지 편향*,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5.

[9] D. D’Alessio and M. Allen, “Media bias in presidential election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50, No.4, pp.133-156, 2000.

[10] 윤석민, *방송의 공정성에 대하여*, 방송 공정성 포럼 발표문, 2013.

[11] 최영재, 홍성구, “언론자유와 보도의 공정성,”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65-171, 2004.

[12] 임태섭, “텔레비전 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담론 분석,” 언론과 사회, 창간호, pp.67-109, 1993.

[13] G. Tuchman,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1995.

[14] R. M. Entman,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41, No.4, pp.6-27, 1991.

[15] W. A. Gamson, *Talking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16] 설원태, “역대 한미대통령 묘사 프레임 비교분석,” 언론정보연구, 제49권, 제1호, pp.107-144, 2012.

[17] 홍주현, 나은경, “세월호 사건 보도의 피해자 비난 경향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9권, 제6호, pp.69-106, 2015.

[18] Z. Pan and G. M. Kosicki, “Framing analysis,” Political Communication, Vol.10, No.1, pp.55-73, 1993.

[19] 이상률, 이준웅, “프레임 경쟁에 따른 언론의 보도 전략,” 한국언론학보, 제58권, 제3호, pp.378-407, 2014.

[20] H. A. Semetko and P. M. Valkenburg,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50, No.2, pp.93-109, 2000.

저 자 소 개

김 병 진(Byoung Jin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정치학과(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박사과정 재학
 - 1994년 12월 ~ 현재 : KBS PD
- <관심분야> : 포토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이 상 은(Sang Eun Lee)

정회원



- 2011년 5월 :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석사)
 - 2016년 6월 : 미국 노스웨스트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박사)
 - 2017년 9월 ~ 현재 : 상명대학교 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영상·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 <관심분야> : 디지털미디어, 휴먼커뮤니케이션

양 종 훈(Yang Jong Hoon)

정회원



- 1991년 2월 : 미국 오하이오대학교 포토커뮤니케이션(예술학 석사)
 - 2005년 2월 : 호주 RMIT 대학교, Art and Culture(예술학박사)
 - 1992년 9월 ~ 현재 : 상명대학교 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디지털이미지, 포토저널리즘